

인권정보자료실  
CPe1.36

여순사건 5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 일 시 : 2001년 10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여수대학교 인문사회관 강당

여수대학교 좌수영문화연구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550-210 전남 여수시 오림동 399-5  
Tel 061) 651-1530 / Fax 061) 654-7749  
[www.yosuicc.or.kr](http://www.yosuicc.or.kr) / [yosuicc@hanmail.net](mailto:yosuicc@hanmail.net)

주최 : 국립 여수대학교  
주관 : 여수대학교 전라좌수영 문화연구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CPe1.36

여순사건 5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

##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 일 시 : 2001년 10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여수대학교 인문사회관 강당

주최 : 국립 여수대학교

주관 : 여수대학교 전라좌수영 문화연구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순서

- ◆ **사회** : 정청주(여수대 교수)  
김준옥(여수대 교수)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 1부 식전 행사

- ◆ 대회사
- ◆ 격려사

## 2부 학술세미나

- ◆ 발제 1 :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 3  
발제 : 김 득 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토론 : 안 정 애(전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 ◆ 발제 2 :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실상, 과거와 현재 / 29  
발제 : 정 지 환(전 '말'지 기자)  
토론 : 김 주 완(경남도민일보 기자)
- ◆ 발제 3 : 미 제6사단 G-2, 3보고서 내용 발표 / 61  
발제 : 김 동 춘(성공회대 교수)

## 3부 유족의 증언

- ◆ 이끄는 소리 : 최 정 삼(여수대 강사)
- ◆ 각 지역별 증언(제주, 여수, 문경, 순천, 부산, 구례, 의령, 보성, 제주)

##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 발제 1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1. 머리말
2. 한국 부임 이전의 하우스만
3. 한국군 형성과 하우스만 - '국군의 아버지'
4. 여순사건 진압의 계획자 - 학살의 일복
5. 한국정치사회 하우스만의 개입
6. 맺음말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1. 머리말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조차 그가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 그가 알려진 것은 하우스만의 회고록이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이것이 책으로 묶여 출판되면서부터였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한국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것조차 이전부터 그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군 관계인물이나 그의 배후 역할에 주목한 언론인·정치학자·역사학자들에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에서는 하우스만 개인을 다룬 논문이 이미 2편 나와 있다. 하우스만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쓴 사람은 밀레였다. 그는 도널드 클락은 한국군 형성과정에서의 하우스만 뿐 아니라 한강교 폭파 등의 생철에 대해서도 언급한 글을 한 심포

##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1 概 略

제임스 하우스만 스승의 회고록

중 국 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 머리말
2. 한국 부임 이전의 하우스만
3. 한국군 형성과 하우스만 - '국군의 아버지'
4. 여순사건 진압의 계획자 - 학살의 말뚝
5. 한국정치사와 하우스만의 개입
6. 맺음말

### 1. 머리말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조차 그가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 그가 알려진 것은 하우스만의 회고록이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이것이 책으로 묶여 출판되면서부터였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한국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것조차 이전부터 그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군 관계인물이나 그의 배후 역할에 주목한 언론인·정치학자·역사학자들에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에서는 하우스만 개인을 다룬 논문이 이미 2편 나와 있다. 하우스만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쓴 사람은 밀레였다. 최근 도널드 클락은 한국군 형성과정에서의 하우스만 뿐 아니라 한강교 폭파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글을 한 심포

지음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하우스만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하우스만이 행했던 역할을 군 형성과정의 비사(秘史) 정도로만 취급하고 인식하는 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 하우스만이 주로 정보방면의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우스만과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정일권이나 백선엽조차 그들의 회고록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우스만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sup>2)</sup> 정일권이나 백선엽의 책을 아무리 자세히 훑어보아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 전직 한국군 장성들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하우스만을 언급하기를 꺼렸다면, 그 이유는 하우스만이 이들 장성들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우스만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순사건 때 정보장교 자격으로 최초의 정보군 관계 대책모임에 참석했던 고정훈의 회고록에는 하우스만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나와 있다.<sup>3)</sup>

하우스만은 1946년 7월 26일 남한에 첫발을 디딘 이래 국방경비대 고문관·미군사고문단장 고문을 지냈고 1950년에는 체병덕과 이승만의 군사고문을 지내면서 한국군 형성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한 사람의 키 큰 미군 대위에 불과했지만, 1960년대까지 한국정치의 배후무대에서 정력적으로 활약했다. 하우스만은 일국의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었고, 남한 '국군의 아버지'로 자칭했다. 자신의 회고록 제목 또한 그렇게 지었다. 어찌보면 당돌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은, 그러나 사실에 가깝다. 아니 미군 장성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일개 미군 대위가 어떻게 그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말인가? 하우스만의 일생은 국군의 역사,

더 나아가 군부가 수 십년 간 좌지우지했던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정보 업무가 그렇듯 그는 베일에 싸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베일에 싸여 감추어지기에는 활동영역이 너무나 컸고, 고위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미국의 커밍스는 하우스만이 30년을 한국에서 보낸 가장 주요한 미국 요원이었으며, 미국과 한국군부 간에 그리고 이들 정보기구 간의 연결자로서 활동했다고 썼다. 커밍스는 하우스만이 '촌뜨기 같은 언행 뒤에 자신의 기술을 감추고 있는 교활한 공작원'이었으며, 한국판 에드워드 란즈데일이라고 주장했다.<sup>4)</sup>

최근 한 신문 칼럼에서 박노자는 제임스 하우스만의 역할과 행동을 아는 것은 (젊은이들이) "배우지 못한 또 다른 현대사 속에 어떤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대미 관계는 어느 정도 종속적이었는가"를 아는 것이며, 하우스만을 한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이 글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임스 하우스만을 한국군의 형성과정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측면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그의 증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sup>6)</sup>

4)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285

에드워드 란즈데일(Edward Lansdale, 1908~1987)은 2차세계대전 때 미군 정보기관인 OSS에서 근무했다. 1948년까지 필리핀군이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도운 그는 공군 전략정보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했다. 그는 공산주의 후크단 토벌에 고심하던 필리핀군의 정보업무에 대해 조언하였고, 라몬 막사이사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미군 사이에서 연락장교 역할을 했는데, 이는 남한에서 하우스만이 했던 역할과 비슷했다. 그는 게릴라토벌, 심리작전 뿐만 아니라 시민활동, 후크 포로의 재할사업에까지 관여했다. 그 뒤 베트남에서도 군과 정부에 국내 안보문제를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냉전시대에 '강력한 미국 행동'을 추구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도록 이 나라들을 키워냈다.

5) 박노자, 「어두운 현대사 가리기」, 『한겨레신문』 2001.6.11.

6) 여기에서 인용되는 인터뷰 자료는 John Toland interview, 1988, Austin, Texas(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992.11.15., Austin, Texas(영어본, 국역본)이다. 하우스만의 인터뷰는 그의 활동에 대한 다른 자료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만 인터뷰에는 자기 역할에 대한 과대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그가 한국군 형성과정과 한국정치사의 주요 고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

1) Allan R. Millet, Captain H. Hausman and the Formations of the Korean Army, 1945~1950, *Armed Forces and Society*, XXIII(Summer 1997)

Donald N. Clark, 2001.5.4., *Jim Hausman, Soldier of Freedom*, 미시간대학교 주최 'Between Colonialism and Nationalism: Power and Subjectivity in Korea, 1931-1950' 발표문. 하우스만에 대한 글은 도널드 클락 교수가 펴낸 *Missionaries, Miners, and Military Advisors: the American Experience in Korea, 1900-1950*이라는 책에 수록될 부분이다.

2)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정일권, 1986,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이형근, 1993,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3) 고정훈, 1967, 『비록 군』, 동방서원. 고정훈은 해방 직후 소련군 통역으로 활동하다가, 월남하여 미군 정보기관에서 일했다. 이승만정권때는 진보당 선전간사를 지냈고, 4월혁명 뒤에는 혁신계에 몸을 담가 통일사회당 선전국장으로 활동 중, 5·16쿠데타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한편 하우스만은 '국군의 아버지'라는 얼굴 이외에도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 반공국가 형성과정은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자격심사과정에 다름 아니었는데, 이 때 '좌익 빨갱이'는 너와 나를 가르고, 국민과 비국민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학살은 국민 자격을 심판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순사건 진압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등 반공체제 구축에 전력 질주하는 바, 하우스만은 여순사건 진압작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우스만은 단지 배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학살이 있을 수 있게 만든 든든한 말뚝이었다.

## 2. 한국 부임 이전의 하우스만<sup>7)</sup>

제임스 해리 하우스만은 1918년 2월 28일 뉴저지주 러니미드(Runnemede)에서 아버지 존 하우스만(John Otto Hausman Sr.)과 스코틀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자이자 청부업자였는데 이름에서 나타나듯 독일계 사람이었다.

러니미드의 중학교와 뉴저지 오두본(Audubon) 고등학교에 다니던 하우스만은 그의 나이 16세에 군 입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나이로는 부모 동의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군 입대를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형의 이름을 빌어 지원하게 되었다. 원래 제임스란 이름은 그보다 6살 위인 형의 이름이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버지를 따라 지은 존 오토 하우스만 주니어(John Otto Hausman Jr.) 였다. 그는 자신이 입대한 이유를 '형은 누나를 만나러 가고 혼자 남아있는 상황' 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은 커 보였고 '외로웠다'고 회고했다.

군대에 들어간 하우스만은 메인주 맥킨리 항구에 주둔하고 있던 5보병 연대에

기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은채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만 부풀려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김점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하우스만의 회고록의 "신빙성이라던가 과장되는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미군이 적극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군의 지원을 부정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김점곤 인터뷰, 1999년

7) 이 부분은 John Toland interview, 1988, Austin, Texas(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에 많은 부분 의존했다.

배치되었고, 1940년에는 형의 이름을 공식적인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얼마간 파나마에 근무하기도 한 하우스만은 1941년 1월 24일 소위로 진급했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아이오와주 데스 모인(Des Moines)항에 여성보조군(Women's Army Auxiliary Corps; WAAC'S) 형성의 임무를 맡고 차출되어 배치되었다. 이는 하우스만이 원하던 보직은 아니었으나 월급은 많았다. 하우스만의 상관은 그가 결혼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대에 배치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이 부대 교육에 필요한 군사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 뒤 중위로 승진한 하우스만은 6개월이 조금 넘어서 다시 대위로 승진하였다. 소위에서 대위까지 6개월만에 빠르게 승진했던 것이다.

그 뒤 하우스만은 미주리주 레오나드 우드 항구에서 활동했던 75보병 사단에 배치되어 벌지전투에서 부상병을 영국으로 후송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작전장교로 289보병연대 1대대에 S-3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본대로 귀환하게 된다.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하우스만은 펜실바니아 군사행정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난 뒤 하우스만은 1946년 7월에 한국으로 파견되게 된다. 이 때 하우스만의 나이는 28세였다. 하우스만은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를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른 동료 군인들은 거의 모두 일본에 머물러 있고 싶어했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이들과 달리 한국에 선뜻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호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군인의 자세에 충실한 판단이었다.

한국에 들어와 러치장군을 만난 하우스만은 점령지 군사행정은 싫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그의 부임 신고를 들은 러치는 "자네 기록을 보니 병사이므로 프라이어스 대령이 국내 보안부서를 조직 중에 있으므로 프라이어스 대령에게 신고하게.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보안부서 조직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입장이지" 하고 말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각각 점령한 상태에서 양측은 남과 북에 군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남북에는 미소양군과 치안유지만을 위한 경찰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남한 군대는 경찰을 보조하는 경찰예비대(constabulary)로 출발했다. 하우스만은 미군정 하에서 조선경비대 창설요원으로 배속 받으면서 남한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이후 프라이스 대령에게 신고한 후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에 배치되어, 연대를 훈련시키고 확장하는 일을 1개월 정도 맡았다. 이 당시는 경기도의 1연대만이 한국 내의 유일한 완전한 규모의 연대였다.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의 생활에 대해 “내 군대경험 12년에 비추어 그 곳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sup>8)</sup>

한편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배로스(Russel D. Barros) 대령에게 보고하곤 했는데, 배로스는 하우스만의 보고서를 눈 여겨 보았다. 드디어 배로스는 하우스만을 찾아와 서울로 와서 자신의 수석보좌관 일을 맡아달라고 청하였다.<sup>9)</sup> 1946년 8월부터 하우스만의 본격적인 활동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 3. 한국군 형성과 하우스만- '국군의 아버지'

하우스만은 1946년 춘천 8연대 근무를 거쳐 서울로 올라와 배로스 휘하에서 조선경비대 집행국장(Executive Officer)이자 고문관으로 근무했다. 그 뒤 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배로스 대령이 제주도지사로 발령이 나고, 송호성이 아직 임명되기 전이었을 때에는 하우스만이 사실상의 사령관 대행으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총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sup>10)</sup>

하우스만은 김완룡, 이지형을 시켜 미군 조직법을 번역해 군대조직법을 만들게 하는 등 군사훈련법, 군통제법, 군형법 등의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우스만의 지휘하에 경비대에서 사용할 군사용어도 영어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새롭게 만들었다.

하우스만이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배치 받아 처음 느낀 것은 군대와 경찰간의 충돌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점과 지방 좌익의 영향으로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초기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에서 하우스만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기준을 갖고 실전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했다. 당시에

8)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2쪽

9) John Toland interview, p.9

10) 짐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30쪽

군대에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육사를 졸업했거나 만주군 출신으로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위해 복무했던 사람들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자 일본군 출신들은 영달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호기를 맞았다. 이들은 국방경비대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형근이 그랬고, 채병덕이 그랬고, 정일권이 그랬으며, 백선엽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러했다.<sup>11)</sup>

하우스만의 친한 한국군 친구들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일본군 출신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이 더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데서 찾았다. 한편 하우스만은 광복군 출신들을 상당히 무시했다. 그는 광복군이 장개석 장군의 '부속기계 같은 존재'였으며, '저속한 말로 불평할게 많다'고 하였다.<sup>12)</sup>

하우스만이 광복군을 싫어했던 중요한 이유는 광복군 출신들이 일본군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공산주의자를 적대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하우스만은 그 예로 송호성은 공산주의에 대해 나쁘다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up>13)</sup>

이러한 점은 여순사건 때 이승만 정부와 미군이 이 사건의 발발 요인을 극우와 극좌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보는 시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순사건 발발 초기에 이범석국무총리는 이 사건이 김구와 군대내 반이승만 세력이라는 극우세력과 남로당 극좌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설명했고, 미군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김구에게 끊임없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을 위협하는 김구라는 존재에 대한 시각은 김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sup>14)</sup>

11) 이승만대통령은 정일권, 백선엽, 이형근 세 사람을 '내 어금니'라 부르며 국방을 책임질 든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4년에 정일권을 참모총장, 백선엽을 1군사령관에 임명하고는 이형근에게 줄 자리가 없자, 결국 합동참모본부를 만들어 그 자리에 이형근을 임명했다. 이 세 사람은 이승만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하우스만과 친한 사이이기도 했다.

12)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0쪽

13) John Toland interview, pp.10~11. 하우스만은 국방경비대원들은 송호성을 총참모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문제를 일으킨 광복군에게 송호성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14) 김득중, 2000,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학연구소, 『역사 연구』 제7호; George E. Cilly, Kim Koo,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Assassination, 1 July 1949.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이 문서에는 광주 CIC가 1948년 11월 11일 보고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여순사건 직후 작성된 이 보고서는 김구가 군부 내 우익과 연대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고 있다. 1948년에 작성된 보고서가 김구암살 직후 다시 등장하여 사용되



다른 미군 병사가 언제쯤이나 본국으로 돌아갈까 골몰할 때, 하우스만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문화를 익혔고 한국말도 알아듣기 시작하는 충성스런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져가고 있던 시기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군 내부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하우스만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미국 군인이 되어 어느새 누구나 조언을 구하는 ‘한국통’이 되어 갔던 것이다.

광복군보다 일군·만군 출신을 우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하우스만의 철저한 반공주의는 인사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하우스만이 한국 사정에 밝아지면서, 미국 장군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가 적합한지 그리고 한국군과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하우스만을 필요로 했고, 하우스만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한국군 장교들에게 하우스만은 작전과 군대 운영을 ‘조언(실제로는 지휘)’하는 고문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세와 영달을 보장해 주는 직선 코스였다. 그의 마음에 들면 승진할 수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명도 내놓아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때 채병덕 총참모장이 이범석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해임하려 한 적이 있었다. 이범석은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는 민족청년단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을 견제하기 위해 일단 정부 요직에 앉힌 다음, 수많은 청년단체를 모두 해체시켜 버리고 이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했다. 이범석은 자신의 사지가 잘려 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범석과 채병덕은 친한 사이이기는 했지만, 이범석이 중국에서 무기를 들여와 팔고자 했을 때 하우스만의 조언으로 채병덕이 반대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승만은 채병덕 후임으로 김석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석원은 이승만의 열렬한 추종자인 임영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하우스만은 김석원을 군인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sup>15)</sup>

이승만이 채병덕을 교체하려 하자 하우스만은 “대통령 각하, 만약 채병덕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시키고 김석원을 임명한다면 미군사고문단을 철수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해 버렸다.<sup>16)</sup>

한국전쟁 직후에 채병덕에서 정일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하우스만이 있었

다. 이승만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총참모장을 교체하려 하였는데, 채병덕 후임으로 누구를 추천하느냐고 하우스만에게 물었고, 하우스만은 정일권이라 답했다.<sup>17)</sup> 물론 정일권의 미군 군사고문으로 일하게 된 사람은 하우스만이였다. 이렇게 하우스만은 군 수뇌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하우스만이라는 미군 고문관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하우스만은 “그 때 모든 사령관의 파면, 임명이 내 손을 거쳐갔으며 내가 사령관과 미 대통령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두 사람의 유일한 통로였다. 내가 어떤 사람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화 가능했으며, 내가 원한다면 국방부장관과도 바로 대화가 가능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sup>18)</sup>

하우스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재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하우스만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하우스만은 한국군에 많은 인맥과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출범할 때, 한국 근무기간을 훨씬 넘긴 하우스만은 전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다른 고문관은 필요치 않아. 나는 하우스만을 필요로 해”라고 말했다. 결국 미고문단장은 하우스만이 계속 한국에 남아있기를 권했고, 이미 한국어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한국 장교들의 면면을 줄줄이 꿰고 있던 하우스만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드디어 전쟁 중이던 1951년 하우스만은 한국을 떠나 국방부 국방정보부(DIA)로 자리를 옮겨 한국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우스만이 일했던 참모총장 고문 후임에는 짐 하웬이 임명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하우스만이 있으면 참모총장 고문자리가 있고, 하우스만이 가면 참모총장 고문자리도 간다라고 하면서 하웬을 연락장교로 배치하였다.<sup>19)</sup>

하우스만의 마음에 차고 안 차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였다. 하우스만이 좋아하고 아꼈다고 해도, 그가 공산주의자로 밝혀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그것도 하우스만이 사형 장면을 찍는 필름을 돌리는 앞에서. 김종석의 운명이 그랬다. 김종석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수재였다. 하우스만은 김종석의 군사적 능력과 군인의 자질에 대해 상당히

었다는 점은 미국측의 김구에 대한 의혹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하우스만은 김석원에 대해 “폭탄이 옆에 떨어질까봐 얼마나 떨던지”라고 하면서 그를 깔보았다.

16)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6쪽

17)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9쪽

18)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2쪽

19)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8쪽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장차 한국군을 이끌어갈 대들보로 생각하였다. 하우스만은 그를 조선경비대 내의 작전교육과에서 초대 과장으로 일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순사건 뒤 숙군 바람이 몰아치면서, 김종석은 공산주의자로 분류되어 1949년 9월 서울 부근 수색에서 처형당했다. 이 때 하우스만은 이 처형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16밀리 무비 카메라에 담았다.<sup>20)</sup> 그리고 이 필름을 '한국 좌익 총살 시청각 교과서'로 활용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부터 하우스만은 이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로버츠 고문단장 등이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에 참가했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면서 임시군사고문단([PMAG], 나중에 군사고문단[KMAG]으로 변경)이 만들어지자, 하우스만은 군사고문단장과 국군 참모총장 사이의 연락 임무를 맡았고 이승만을 면담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승만은 수시로 하우스만을 경무대로 불러 군사관계를 묻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대에서 당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를 교체하겠다"라고 하였다.<sup>21)</sup> 대통령은 개별보고서를 요구하곤 했는데, 군대의 사기문제라든지 군 조직 개편 등에 관한 보고서도 요구했지만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 관한 보고서도 요구하곤 했다.

하우스만이 총참모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 일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단지 참모총장의 고문일뿐이었으나, '모든 작전에 책임을 졌다'. 사령관을 임명하는 일, 부대를 배치하고 그것이 중대, 대대, 연대이건 그들에게 임무수행을 명령할 일, 그리고 그 사령관을 감독하는 일들이 하우스만이 했던 일이었다. 사령관이 임무를 완수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감독했고 또 그 결과를 검토했다. 게릴라 토벌작전 때에는 빨치산들을 몇 명이나 체포했는지, 죽였는지, 부상자는 몇 명인지 등을 체크하는 일도 하우스만의 일이었다.<sup>22)</sup> 결국 하우스만은 고문이었지만, 미군이 국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는 하우스만 또한 자신이 조언하는 상관을 지휘할 수 있었다.

한번은 정일권과 고문관 하우스만이 토벌중인 백선엽 부대를 조사하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빨치산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도, 정일권은 체면 때문에 예정된 길을 가자고 주장했다. 이때 하우스만은 "정, 당신은 부참모총장이고 나는 참모총장의 고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 길로 가기를 명

령한다"고 말하였다.<sup>23)</sup>

하우스만의 이런 권능은 하우스만이라는 한 개인의 능력은 아니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미국군과 한국군의 당시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우스만은 그 집약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 4. 여순사건 진압의 계획자 - 학살의 말뚝

1948년 10월 19일 저녁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는 제주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지창수 상사가 지도한 14연대는 이날 저녁 여수로 진입하여 경찰서와 철도경찰, 관공서를 순식간에 점령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통근 기차를 이용하여 순천으로 북향했다.

광주 5연대가 여수주둔 14연대 반란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20분이었고, 이 사실이 서울에 보고된 것은 9시였다.<sup>24)</sup> 이날 아침 미군 사고문단장 로버츠에게 반란 소식이 보고되었고, 로버츠 고문단장은 즉시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는 미군측에서 하우스만(미 군사고문단 G-3), 존 리드(미 군사고문단 G-2), 트레드웰대위(전 5여단 고문), 프라이 대위(현 5여단 고문)가 참석했고, 국군측에서는 채병덕 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 작전 참모부장, 백선엽 국방경비대 G-2 책임자, 고정훈 국방경비대 정보장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기동작전군(Task Force)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sup>25)</sup>

이 회의를 주도한 것은 미군사고문단이었다. 참모총장과 국방경비대 총참모장

23)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7~98쪽

24) G-3 Section, II 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and the 6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0 November 1948*, p.2 · Incl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집』2에 수록)

그런데 하우스만은 보고서와는 달리 미군이 군반란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10월 19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71쪽

25) G-3 Section, II IV Corps, 앞의 보고서, p.3. 그런데 하우스만은 이날 고문단장실 회의에는 이범석국방부장관,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하우스만과 몇몇 고문단 참모들이 모였다고 회고했다. 김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71~172쪽

20) MBC 「이제는 말할수 있다 - 여순14연대반란」편에 이 필름이 방영되었다.

21) John Toland interview, p.24

22)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7쪽

도 고문단장의 호출에 불려 나왔다. 왜냐하면 비록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독립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군대 지휘권은 1948년 8월 24일 이승만-하지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여전히 미군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6)</sup> 미군은 진압작전에 군대를 보내면서 군사고문단 장교가 꼭 대동하도록 했다. 송호성 사령관도 미군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송호성의 명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문관이였다.<sup>27)</sup>

이로써 하우스만은 리드(Reed)와 더불어 남한에서 직접 전투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는 하우스만이 이전의 국방경비대에서 활동했던 시기의 활동과도 그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었다. 하우스만은 국방경비대를 확충하고 군대를 운영하는 일에는 관여했지만, 직접 적에 대한 작전을 책임지고 주도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우스만은 미 임시고문단을 대표하는 작전책임자로, 그리고 송호성 총사령관의 고문자격으로 이 기동작전군 사령부에 배속됐다. 로버츠는 하우스만에게 공식 명령 네 가지를 주시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군사령부가 사태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관장할 것.
- 둘째,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행위를 할 것.
- 셋째, 결과를 신속히 고문단 본부에 보고할 것.
- 넷째,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sup>28)</sup>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한국군사령부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군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문서에서나 사용될 상당히 완곡한 표현에 불과했다. 국군은 반란군 세력을 진압할만한 교통·통신장비나 작전 경험도 전혀 없었다. 실제로 미군사고문단은 반란이 터졌을 때 무기, 군수, 훈련이 부족

26) R. K.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p.34 ;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171쪽

27)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9~20쪽

28)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172쪽

한 한국군이 과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가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sup>29)</sup>

따라서 미군의 역할은 단지 군 작전을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해주는 이상이었다. 모든 면에서 미군의 지원은 절대적이였다. 하우스만은 그의 회고록에서 "내가 그 때 공식명령으로 휴대한 임무서에는 토벌사령부가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진압사령부의 조직 및 작전과정의 운용을 위한 지휘 및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다는 것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sup>30)</sup>

미 임시군사고문단은 일단 기동작전군을 구성한 다음에는 장비와 물자를 실어 날랐다. 하우스만이 광주에 파견되는 것과 동시에 화차 2량에는 무기·화약·식량 등이 실려 광주로 떠나갔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대부분 일본식 38식, 99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제주도 파병을 위해 14연대 정도에만 M-1이 지급된 형편이었는데, 미군은 사건진압에 파견된 부대원들에게 모두 미24군 탄약고로부터 지원된 M-1 소총으로 무장시켰다.<sup>31)</sup>

제대로 된 비행기 한 대 가지지 못한 국군은 미군에게 수송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의 C47 수송기는 하루 한 번씩 서울-광주간을 오갔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리는 1일 작전 보고와 서울에서 내려오는 1일 작전 명령이 이 비행기에 실려왔고, 탄약·무기·식량 등을 수없이 실어 날랐다. 어느 하루는 쌀 6톤, 육류 20박스를 싣기도 했다. 쌀은 한국산이었지만 육류는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무초 주한 미대사는 국무장관에게 "지난 10월에는 여수, 순천지역에 대한민국 사람들, 탄약, 통신장비를 수송하느라 미국 수송기가 러시를 이루었다"는 전문을 타 전했을 정도였다.<sup>32)</sup> 10대의 L4 경비행기도 지원되었다. 5대는 광주에 배치되었고,

29) 순천진압작전 때 백선엽이 공지간(空地間) 무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백인엽 12연대장에게 '반란군은 동요하여 동순천으로 이동중이다. 신속히 순천에 돌입하여 지시하는 방향으로 추적하라. 정보국장 백중령'이라고 쓴 통신문을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하늘에서 떨어트려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형제의 일화'는 당시 군의 장비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쟁 비사』 제1권, 병학사, 346~347쪽

30)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30쪽

31) 이 밖에도 81mm박격포와 실탄, 60mm박격포와 실탄 LMG(경기관총) 등이 미 24군 탄약고로부터 지원되었다.

3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주한 미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49. 5. 3.), pp.1005~1006

5대는 전주에 두어 부대간의 연락용으로 쓰거나, 여수·순천을 공중정찰하는데 사용되었다.<sup>33)</sup>

통신은 광주에 주둔한 미20연대가 갖고 있는 장비를 지원했다. 최신 무전기 M208이 작전 하루 이틀 뒤에 보급되어 작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가끔 반란군은 경찰 전화선 껍질을 벗기고 통화내용을 도청하곤 했는데, 최신 무전기는 안전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수와 순천은 즉시 진압되지 않은 채, 초기에는 진압군이 반란군에 협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반란의 진원지인 여수와 순천을 빨리 탈환하고자 시도했다. 미군 수뇌부는 “이승만 정부가 곧 전복 당할 처지에 있다. 여수는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진압해야 한다”고 진압군을 재촉했다.<sup>34)</sup>

하지만 하우스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우스만은 진압작전은 순천에서 부대를 멈추고 전선을 구축하여 바다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전선에는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부대만을 남겨 놓고 대부분의 부대는 북쪽으로 행진시켜 지리산을 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우스만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여순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군인과 지방좌익세력의 합세로 인해 여수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그는 여수 14연대의 최초 봉기 때 골수 추종자는 불과 40명에 불과하며, 전투에서는 첫 조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차공격을 가해 반란군의 자만심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창수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북한과 호응하여 남한에 항상적인 소요를 일으킬 빨치산 유격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는 파악했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발발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반란은 공산당 조직이 사전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여수의 공산주의자들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봉기는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 일어난 최후의 대중적 봉기였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여순사건을 북한과 연관지어 사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입산을 극구 저

33) 미국의 G-2, G-3 보고서나 Chronological Journal of Events에는 여수·순천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공중 정찰 보고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미군의 비행기에 의한 것이었다.

34)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0쪽

지하려 했던 것이다.<sup>35)</sup>

하우스만에게 주요한 것은 여수·순천의 신속한 탈환만이 아니라 반란군이 산계릴라로 침투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백운산, 지리산 등의 퇴로를 우회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와 무초대사, 로버츠 단장 등은 여수·순천을 탈환하는 것에 변함없는 우선 순위를 두고 하우스만의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우스만의 판단이 옳았다. 14연대 반란군들은 지리산 등에 입산했고 장기 게릴라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우스만이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는 그릇된 것이었다. 여순사건 이후에 본격화되는 게릴라투쟁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이끌려 벌어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수 진압작전에는 38선 경비임무를 맡은 부대를 제외한 남한의 거의 모든 대부대가 참가함으로써, 한국군은 처음으로 연합작전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전에 있었던 군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이제 군의 압도적 우위로 결판났다. 사건이 발발한 요인에는 친일 경찰에 대한 경비대의 반감이 작용했기도 했거니와, 진압작전 과정 자체를 군대가 완전히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분규를 진압하는데는 소규모 화력이 아니라 정규군의 압도적 화력이 역시 중요했다. 미국이 제공한 화력 덕분에 진압군은 순천을 24일, 여수를 27일 완전히 제압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진압은 14연대 반란군과 진압군만에 한정된 전투는 아니었다. 진압군 작전은 정규 14연대 반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그 결과 여순진압작전은 무수히 많은 민간인 희생을 불러왔다.<sup>36)</sup>

10월 27일 여수 전 시내를 포위하면서 작전을 시작한 진압군은 기관총을 난사하며 잔여 세력의 저항을 제압하는 동시에 시민을 집밖으로 몰아내고 민가를 살살이 수색했다. 반란군으로 의심되는 조금의 저항이라도 보이면 기관총을 쏘아댔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사살되었다.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나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진압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모두 모이라는 장

35)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185쪽

36) 김득중, 2000,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소에 나왔다.<sup>37)</sup>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도 반란군으로 간주되어 끌려 나왔다. 의심되는 사람의 변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압군의 협력자 색출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이 때문에 시내는 공포분위기로 완전히 뒤덮였다. 위헌적인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협력자 색출과정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리조차 무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협력자 색출은 단지 믿음직하지 못한 혐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인명의 숫자조차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유혈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권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반공체제 확립의 법적 지주를 마련한 셈이었다.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이 만들어졌고,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도연맹(保導聯盟)에 가입해야만 했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한국전쟁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수들과 함께 제1차적인 학살 대상이 되었다.

여순사건이 종결된 뒤 미 국방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압작전의 공로'를 인정해 1949년 1월 10일 하우스만에게 미 공훈장을 주었다. 이 훈장은 은성무공훈장 다음가는 4번째 서열쯤의 훈장이었고,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이런 훈장은 드문 일이었다. 아니, 미군은 당시 남한 상황을 전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우스만의 훈장에는 학살의 공도 포함되어 있을까?<sup>38)</sup>

하우스만이 국방경비대와 국군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남한에 반공국가 세우지는 때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3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54쪽.

38) 육사 7기 특별반에서 훈련을 받다가 기동작전군에 포함되어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을 담당했던 고정훈도 여순사건 뒤에 공을 인정받아 대위로 특진했다.

했다. 1949~50년 사이에 미국무성과 주한미대사관을 오고간 문서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이승만이 병력과 끊임없는 물자 지원요구로 채워져 있다.

한국전쟁 때 패주하던 이승만과 채병덕 총참모장이 미국 개입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워 했고 그래서 군 작전권을 대전에서 종이쪽지 하나로 맥아더에게 헌납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 모른다.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으로 남한은 반공국가의 모양을 점점 갖추어 갔지만 제주도와 여수에서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었다. 얼핏 국군·경찰·청년단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학살의 배후에는 이 사실을 묵인한 미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조직체이자 반공이데올로기의 보루로서의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여순사건 뒤 대대적으로 실시된 숙군 때부터였다. 숙군과정을 주도한 김창룡은 만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들을 검거한 경력이 있었고, 북한에서 소련군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남하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과정은 빨갱이 사냥 이상의 것이었다.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그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군대 내부에 침투한 빨갱이에 대한 사냥을 마음놓고 자행했다. 단지 반공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마음 들지 않는 인간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다.

김창룡의 뒤에는 이승만이 있었지만, 김창룡은 하우스만에게도 직접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숙군 상황을 매일 매일의 일일보고를 통해 이승만에게 보고하였다.<sup>39)</sup>

김창룡과 하우스만은 반미·반일 성향을 가진 공산주의 박멸에 뜻을 같이하고 있었고, 열성적이었다. 김창룡은 군내부의 숙청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학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학살을 직접 주도하고 시행한 인물로서 '스네이크 김'으로 악명을 떨친 인간이다. 하지만 이런 악명은 하우스만에게도 해당되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무효 주한 미대사가 재판도 없이 제주도에서 민간인 20명을 총살한 사실을 보고 받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 때 하우스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39)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34쪽

한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다. 과거에는 이같은 민간인 200명 또는 더 이상이 집단으로 처형되었는데, 이제 숫자가 20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진보이다.”라고 무초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던 이 의연한 대답은 그의 황폐한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무초 대사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워싱턴에서 하우스만을 다시 만났을 때, “자네가 당시 그렇게 말했다네”라고 상기시켜 줄 정도였다.<sup>40)</sup>

이런 그의 심성 때문에 그는 미군들 사이에서조차 ‘무서운 사람’으로 꼽혔다. 김창룡이 ‘스네이크’였다면, 하우스만은 이 뱀이 활개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담력을 키워준 ‘대사형(大蛇兄)’이었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자신의 손에 붉은 피를 묻히려고 하지는 않았다. 민간인학살을 지켜보고 옆에서 이 과정을 점검하던 다른 미군 장교들과 같이, 하우스만 또한 학살현장을 목격했지만 스스로가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에 대한 언급도 그러하다.

경비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데리고 가서 나무 막대기에 묶어 놓고 끝이 뾰족한 대나무 막대기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를 보여주면서 주민을 처형했다. 또 주민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한 뒤 구덩이 가에 서게 하여 다른 주민들이 대나무 막대기로 그 사람을 찔러 구덩이에 빠뜨린다. 그러나 대나무는 상처만 내지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므로 경비대 군인들이 구덩이에 넘어진 주민들 위에 석유를 부어 산채로 태워 죽이곤 했다. 제주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sup>41)</sup>

하우스만은 경비대 군인들이 자행한 학살을 단지 ‘목격’만 하고 자신의 손은 하얗게 남겨두었을까?

물론 하우스만은 학살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우스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수 천명의 공산당을 처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었다. 다시 질문이 이어졌지만 하우스만의 대답은 “잔학 행위는 없었다”였다.<sup>42)</sup>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좋다는 하우스만의 반공주의는 끈질긴 것이었다. 1948년 6월, 제주도 9연대에서는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와 함께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달 박진경 대령 암살범인 문상길 중위와 그의 부하들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sup>43)</sup>

박진경은 일본 외국어학교 출신으로서 영어를 잘 해 미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군정장관 딘은 그를 총애하여 직접 진급 계급장을 달아주려 제주도로 내려올 정도였다. 박진경은 이에 부응하여 15세 아이를 사살하는 등의 무차별 체포작전을 폈고, 이는 도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박진경을 쏜 군인은 “박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공격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재판정에서 말하였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인권옹호연맹이나 법학가동맹은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민족반역자를 총살한 동기를 참작하여 감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상길은 몇 달 뒤 사형되었다.

전임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처형 광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총살형은 수주일 후에 수색에서 집행되었다. 3인은 총살장에서도 평소와 별다른 점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이 뿌리는 피와 정신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하고 기도 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후 ‘양양한 앞길을’ 하는 군가를 부르면서 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해괴한 것은 참관한 하우스만 대위가 다가가 넘어진 시체에다 자기 피스톨을 꺼내 난사했다는 것이다. 하우스만 대위는 경비대 정보책임자로 박진경 대령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미군정장관 딘 장군에게 박대령을 추천한 장본인이었다. 총살 현장의 광경은 참관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sup>44)</sup> 문상길의 처형은 군 내부 좌익세력 척결의 신호탄이었다. 하우스만이 한 짓이 여기에 그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이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전쟁 때 남하하기 시작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압박했을 때였다. 대통령은 라디오로 서울을 지킨다는 허위방송을 전국민에게 떠든 채 몰래 달아나 버리고, 채병덕은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비워가며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인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경 한강인도교가 폭파되었다. 미8군에 의하면 국군 9만 8천

40)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3~24쪽

41)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4쪽

42)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41~42쪽

43) 문상길은 “부하들이 암살했다... (하지만) 내가 주모자가 됐다. 어쨌든 박대령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감옥해서 말했다고 한다.

44)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2, 전예원, 351~353쪽

명 가운데 한강을 건너온 군인은 불과 2만 4천 명 뿐이었고, 경찰 병력 중 피난 간 사람은 4,500명에 불과했다. 다리 위에서는 피난 가려는 시민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인민군을 피해 피난 가던 국민들은 모두 수장되었다. 어떤 미군 장교는 이 폭파로 인해 5~800여 명이 죽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 육사교장이었던 이형근은 현장을 목격한 뒤, 유엔군의 도강을 막기 위해 인민군이 선수를 친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였다.

누가 한강교 폭파의 명령을 내렸는가?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폭파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죄(敵前非行罪)로 몰아 사형까지 시켰지만, 최창식 부인 옥정애의 재심청구 요청으로 1964년 10월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강교 폭파의 책임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그 죄가 돌아갔다.<sup>45)</sup> 최창식에서 채병덕으로 죄인이 바뀌었지만,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럼 진짜 명령자는 누구인가? 당시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퇴역을 맞아 한국을 떠나 있었고, 라이트(Wright)부단장은 일본에 있었다. 또한 책임을 맡아야 할 선임 통신장교인 찰스 스튜리스는 자신은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하우스만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사실상 하우스만이 최고 책임자였던 것이다.<sup>46)</sup>

5·16 후 재심판결에서는 채병덕을 한강교 폭파의 명령권자로 밝혔는데, 채병덕의 고문관은 하우스만이었다. 또한 하우스만은 자신은 한강교 폭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sup>47)</sup> 그는 김백일이 폭파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지만, 김백일은 하우스만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sup>48)</sup> 한강교는 하우스만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폭파되었는데, 하우스만이 단지 행운아이였기 때문일까?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한강교의 조기 폭파」, 『한국전쟁사』2, 244~252쪽

46) 하우스만은 자신이 사령관 대행을 맡았던 두 가지 경우를 기억했는데, 한 번은 배로스가 제주 도지사가 되어 경비대사령부를 자신이 책임져야 했을 때와, 한국전쟁 직전 로버츠단장이 떠나 버린 후 고문단장 대행이 되었던 경우이다.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130쪽

47)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204쪽

48) 한강교 폭파에 대한 하우스만의 증언은 John Toland interview, pp.32~35;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7~38쪽을 참조. 여기에는 짐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한강교 폭파의 책임자를 김백일로 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언은 김백일이 다리 폭발을 중지시키려고 장창국과 정래혁을 급히 현장으로 보냈다는 말을 뒤에 들고 한 증언이라 생각된다.

당시 최창식 공병감의 미군측 고문이었으며 나중에 충무무공훈장까지 받았던 크로포드(Richard I. Crawford) 육군소령은 폭파 당시 최창식은 자신과 같이 짐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기 직전이었으며, 나중에 최창식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으나 하우스만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크로포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병덕에게 폭파 지시를 내린 것은 '미군 장교'였고, 그는 국군 참모총장의 고문이었다고 증언했다.<sup>49)</sup> 만약 한강교 폭파로 서울시민 몇 백 명의 생명을 일시에 빼앗은 사람이 채병덕이라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우스만이었다.

## 5. 한국정치사와 하우스만의 개입

하우스만은 이승만 정권시기에 한 사람의 미군 대위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 초기에 하우스만은 장관들만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미국인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sup>50)</sup> 그는 한 때 경무대에 들어앉아 살기도 했는데, 그것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나 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우스만은 10여 년이 넘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는 최후 통첩을 한 것도 하우스만이었다.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데모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불붙자 미국 정부는 이승만을 더 이상 남한의

49) 크로포드소령의 증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j. Crawford tried to clear poor Col. Choe, but his superior told him to keep his mouth shut and not to meddle in Korean affairs. His superior was none other than Captain James Hausman, an officer junior in rank but with connections with the right people. Maj. Crawford stated that it was "an American officer" who told the ROKA chief of staff, Gen. Chae Byong Duk to blow up the bridge. Maj. Crawford never mentioned the officer by name but he said that it was a captain who was advisor to the ROK Army Chief of Staff - i.e., Captain James Hausman - the Father of the South Korean army." <http://www.kimsoft.com/2000/han-craw.htm>. 이외에도 <http://www.kimsoft.com/1997/hangang.htm> ; <http://www.kimsoft.com/1997/hausman.htm> 을 참조.

50)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85쪽

통치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이에 하우스만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송요찬을 통해 미국의 지지 철회를 통고하였다. 하우스만은 송요찬에게 “당신이 가서 미국 정부는 경무대의 탱크를 철수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발언이었다. 당시 하우스만은 송요찬의 고문이었다.<sup>51)</sup>

이승만 정권 몰락 후 1960년 7·27선거를 통해 들어선 장면을 하우스만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은 이후 군부정권의 등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미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 신파의 수장이었던 장면총리는 이전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하우스만에게 군사자문 역할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미 대사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면은 “일등병으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을 돕기를 꺼리지 않았던 하우스만이 총리인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sup>52)</sup> 이제까지 이승만을 도와던 하우스만이 장면 정권을 도우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결정은 장면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53)</sup> 장면 정권은 4월혁명에서 제기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물리치고 확고한 지배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었다. 장면 정권시기의 정책들-한미경제협정과 데모규제법·반공법의 2대 악법-은 기본적으로 4월혁명을 거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과 혁신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 또한 갖고 있었다. 이 때 등장한 박정희와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는 미국에게 확실히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쿠데타 음모를 감지하고 있었다.

미국대사 특별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던 주한 CIA 지부장 피어드 실버는 장도영을 만나 쿠데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진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하우스만이 건네 준 정보였다.<sup>54)</sup> 군대 내부 사정에 정통했던 하우스만이 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누구보다 더 잘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51)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47쪽

52) 짐 하우스만·정일화, 앞의 책, 43~44쪽

53) 5·16쿠데타 당시 미국이 장면총리의 도피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태균, 2001, 『5·16쿠데타와 미국 - 비밀해제된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여름호를 참조.

54) 쿠데타 직후 미국 CIA활동에 대해서는 피어드 실버, 1983, 『서브 로자-미국 CIA비밀공작부』, 인문당, 205~221쪽을 참고.

하우스만은 1960년 3월 1일, 한국 군부 내의 쿠데타 기도를 상부에 보고했으며, 이런 정보는 “나 이외에 누구도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라고 증언했다.<sup>55)</sup>

군부 쿠데타 주모자인 박정희는 여순사건 때 광주에 내려와 작전참모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여순사건이 진압된 뒤에 군부 내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11월에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남로당 조직체계를 밀고하고 하우스만과 김창룡·원용덕·백선엽 등의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구명운동을 벌임으로써 생명을 건졌다.<sup>56)</sup>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5월 18일 박정희는 미8군에 있는 하우스만의 집을 찾아왔다. 박정희는 자신의 공산주의 경력을 해명하려 했으나, 하우스만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우스만은 박정희와 만난 뒤 바로 자진해서 미국으로 날아가, 미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성, CIA에 박정희와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하우스만은 “그 당시 나는 한국전문가였고, 하우스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다고 나를 믿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관계에 박정희를 신임하도록 얘기할 수 있었다.<sup>57)</sup> 하우스만은 한국 상황과 박정희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한 보답으로 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수여 받았다.

## 6. 맺음말

하우스만은 커밍스가 얘기하는 ‘한국군의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학살의 방조자이자 수행자’로 역사에 기억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 쪽이 비교적 공식적인 역사였다면, 하우스만이 관여한 학살의 역사는 지금까지 은폐된 어둠의 역사였다.

55)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62쪽

56) 김점곤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군부 내의 남로당 총책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점곤은 박정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군부 내 남로당 조직체계를 박정희가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박정희가 군부 내 ‘총책’이 되었는지, 산하 조직 없는 총책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총책의 지위를 가진 자를 살려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57)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51~52쪽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형성은 반공체제의 형성과정이었고 이는 또한 국민에 대한 폭력적 편가르기이자 학살을 의미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체제를 굳건히 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숙군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군대를 가장 강력한 물리적 기구로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의 형성과정은 반공주의를 그 중심적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었다. 반공체제 구축과정은 평화롭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폭력 기구를 전면에서 사용하면서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했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반공체제 구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반공체제 형성의 굳건한 지원자이었던 하우스만은 1981년 한국 땅을 떠났다. 1946년에 한국에 왔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라는 2세대 군부인맥은 그후에도 10년이 넘게 남한을 통치했다.

하우스만이 한국 땅을 떠날 때, 수도방위사령부 시절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보안사령관 노태우 육군중장은 1981년 6월 24일, 하우스만을 불러 두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는 기념패를 하우스만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임스 H. 하우스만,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 - 신생국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의 부침 동안 옆에서 큰 도움을 준 영원한 친구에게. 1981년 7월 1일”

한국군 창설과정 때부터 군에 관여한 하우스만이 보면 전두환·노태우 같은 군인은 꼬맹이 같은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군사정권이 수십 년을 지배했던 한국에서 그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배후 실력자’로서 활동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훈장을 수여 받았다. 그 훈장들은 그가 흘린 땀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의 대가였을까? 이승만의 반공극우체제는 물론이거니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와 50년간 이루어졌던 민간인학살의 핏방울이 그가 뿌려 놓은 유산이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1981년 7월 1일 군사고문직을 떠나면서, 하우스만은 한편으론 “금지령을 느꼈지만, 사랑을 키워온 한국과 친구들을 떠나면서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느낀 금지는 무엇이고, 그에게 한국은 무엇이며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하우스만은 1987년 영국 데임즈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꺼지자 한국인을 가리켜 “일본인보다 더 나쁜 ‘야비한 놈(brutal bastard)’이라고 하였

다.<sup>58)</sup> 그가 몇 십년 동안의 한국생활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인종주의적 편견이 백인의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발설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이런 야비한 한국인에게 “처형된 시체에 가솔린을 뿌리는 방법과 그렇게 하여 공산주의자 처형방법과 비난을 은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느꼈다. 백색 미국인으로 야비한 황인종의 나라 한국에 와 적색 공산주의자의 씨를 말리는 법을 가르쳐 준 하우스만, 그는 부시가 태어나고 주지사를 지냈던 남성의 고향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996년 10월에 죽었다.

58)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285

발제 2

##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정 지 환  
(월간 '말'지 전문기자 겸 기획위원)

##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정지환

(월간 '말'지 전문기자 겸 기획위원)

1. 프롤로그 : 칼-마이던스 기자의 5가지 시각
2. 여순사건 전후 한국언론의 상황과 논리
3.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
4.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현재
5. 에필로그 : 냉전에서 화해로 가는 길목의 3가지 삽화

### 1. 프롤로그 : 칼-마이던스 기자의 5가지 시각

1948년 12월 6일자 <라이프>지에는 「한국에서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해 10월 19일 밤 한반도 남단에서 발생해 일주일 동안 지속된 '비극적 사건'에 대한 한 외신기자의 현지 보도였다. 필자는 기사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 뒤 번호를 붙여 보았다.

(1) 아직 미군복 차림이던 반군들과 그 추종자들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깃발을 올렸고, 피로 물들었던 수일 동안 리승만 정부의 남한 일부 지역을 통치했다. 반군들이 산야로 잠입하기 전,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부군에 퇴각하기 전까지, 라이프지의 칼-마이던스 기자는 이 야만적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었다. '평화스런 천국'(peaceful heaven)을 의미하는 순천(順天)에서, 반군 지도자들은 시 교도소 문을 열

고 정치범들로 하여금 보복 상대를 색출하도록 하기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집집마다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움으로, 반군들은 정부군이 10월 23일 순천을 탈환할 때까지 500명의 시민과 100명의 경찰들을 살육했다.

(2)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군의 차례였다. 라이프지의 칼-마이던스는 (정부군의) 보복이 시작됐을 때, 공포 속에서 이를 지켜봤다. 그는 타전(打電)했다. “이제 정부군은, 산야로 도망갔다 돌아온 몇몇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반군의) 잔혹성을 다시 잔혹하게 보복하고 있다. 우리가 순천에서 아녀자들과 함께 큰 운동장의 측선(側線)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남편과 아들들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검열받고 있었다. 셔츠가 벗겨진 4명의 젊은이는 무릎을 꿇은 채 애원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형상으로 자신의 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원하던 그 두 손이 그의 입과 코로 들어간 것은 (정부군의) 권총 손잡이가 그의 이빨들을 후려쳤을 때였다.”

(3) 순천이 피로 물든 처음 며칠의 공포 시기엔, 그 어떠한 관계자들도 감히 관련 사체를 요구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생존자와 죽은 자 간의 신원확인을 통해, 공산주의자나 정부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즉각적인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안전하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통통) 부어오른 시체더미에서 관련 사체를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큰 운동장을 돌아다녔는데, 이는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관련 사체를 찾았을 때, 처음에는 망연자실했다가 나중에는 통곡 속에 광란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의 글에 각각 (1) 반란군의 봉기와 살육 (2) 정부군의 잔혹한 보복 (3) 민중의 눈물과 통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거니와, 그것은 1907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이 미국인 중군기자 칼-마이던스라는 제3자의 눈에 비쳐진 여순사건의 ‘객관적 인상’이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칼-마이던스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간 뒤 <눈에 비치는 그 이상의 것(More than meets the eye)>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쓰면서 여순사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는 점이다.

(4) 이 반란은 반도의 최남단에 주둔하고 있던 남조선군 연대안의 소수 공산당 세포가 야음을 틈타 그들의 장교를 살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민을 계속 확대해 온 정치가와 경찰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자 시민이 폭동에 가담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한편 칼-마이던스는 이 책을 통해 여순사건의 악몽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장면’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5) 그리고 나서 4일 후 3명의 기자와 함께 내가 시내에 들어갔을 때 전 시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아서 앉혀져 있었다. 이곳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정부의 군대가 반란자들의 잔학행위와 같은 짓의 야수성과 정의를 무시한 태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여자와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얼굴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그 표정-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마디의 항변도 없었다. 살려 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소리도 없었다. 신의 구원을 비는 어떤 중얼거림도 다음 생을 바라는 한마디의 호소조차 없었다. 수세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울 수조차 있었겠는가.

다소 긴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칼-마이던스가 말하고자 했던 ‘눈에 비치는 그 이상의 것’이 결국 ‘폭력에 의한 인간성 파괴에 대한 환기와 경고’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한국 언론에선 여순사건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각’과 ‘본질적 통찰’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칼-마이던스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언론은 여전히 (1) 반란군의 봉기와 살육만을 부각시켜 왔을 뿐 (2) 정부군의 잔혹한 보복과 (3) 민중의 눈물과 통곡에 대해선 애써 외면해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순사건의 (4) 원인과 (5) 본질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한국언론의 주류를 자처하는 대다수 매체조차 여순사건에 관한 한 단세 포적 인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제라도 한국언론은 좌우대립이라는 극한적 상황에서 '항변 없는 침묵' 속에 죽어가야만 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향한 '소리 없는 호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 2. 여순사건 전후 한국언론의 상황과 논리

여순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 일변도의 인식의 1차적 근거는 언론보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고찰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추 바로 끼우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는 주로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 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홍영기,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163p)

여순사건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행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언론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했던 외부적·제도적 상황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48년 당시 언론계에 철저히 관철됐던 정부 당국의 언론검열 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언론에 대한 7개 조항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7개 조항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선동하는 기사,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소란시키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었다.(강준만, <권력변환>, 326-327p) 분단 대치와 좌우대립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러한 '보도지침'은 언제든지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 표변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전남 일원에는 계엄령까지 발포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여순사건 초기에 정부는 철저한 보도관제를 시행했다. 실제로 여순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나 지난 뒤인 10월 22일부터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힘겹게 현장을 취재하고도 사진이나 기사 등을 압수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27일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었다. 사진과 원고를 군에서 검열 당해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과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여수에서 광주 본사까지 원고를 보내려면 결사대를 조직하여 송고해야만 했으니 이 일은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한번 죽지 두 번 죽나'하는 결의를 다지고 가까스로 순천까지는 29일에 도착하였으나 광주까지 가는 일이 또 다시 문제였다. 교통이 완전 차단되었던 것이다. 몇 번의 검문을 거쳐 31일 밤에 가까스로 광주에 도착했으나 찍은 사진 대부분을 검열에 걸려 빼앗기고 말았다. 나로서는 생명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며 순천에서 광주까지 입산한 반군들의 기습을 받으며 사선을 돌파하여 가져온 사진들인데 아쉽게 한이 없었다."(이경모, 「사선 넘어 촬영한 동족상잔의 비극」, 52p)

그러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보도를 단순히 언론의 외부적·제도적 문제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언론의 사명은 끈질긴 확인취재와 냉철한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사회적 본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대다수 한국언론은 그러한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여순사건에 대한 보도행태를 언론의 내부적·주체적 상황에서 동시에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니와,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적절하고 타당하다.

지금까지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순사건 인식은 당시 정부가 왜곡해서 발표한 내용 - 경찰이나 우익인사에 대한 흉악한 처단, 소요와 혼란을 부추기는 좌익활동, 진압군인에 대항한 학생들의 극렬한 저항, 이에 대한 정부나 진압군의 정당한 응징조치 등 - 과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여순진압작전의 실상이나 불법적인 계엄령 그리고 양민학살의 실상 등 여순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측면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연구>, 153p)

우선 당시 언론은 여순사건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수행해야 했다. 설사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1) 왜 다수의 군인들이 소수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의 선동에 넘어갔는지, (2) 왜 다수의 지방 주민들이 이들의 반란에 가세했는지, (3) 왜 일부 진압부대 군인들이 도리어 반란군에 합류했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당시에도 그런 '상식적 의문'을 제기한 기자가 있었다.

이 사건의 현지로 가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자 한 것이 왜 제14연대라는 적지 않은 국군의 병사가 반란을 일으키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서울서 우리가 들은 한 공산당원과 극우파의 공동전략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만일 이 단순한 해석을 그대로 믿는다면 반란의 가능성은 비단 제14연대 뿐은 아니라는 결과가 버려지는 것이며 따라서 금반 사건은 좀더 상세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1948년 11월호)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당시 대다수 한국언론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와 국민이 여순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앞에서 칼-마이던스의 분석을 살펴보았거니와, 14연대 반란의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은 진술과 무관치 않다.

여순사건은 봉기를 일으킨 주체세력인 군과 경쟁관계에 있던 경찰과의 갈등도 작용했지만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분단정권 반대, 친일파 척결 등 해방 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폭발된 것이었다.(김득중, 앞의 글, 150p)

우리는 여기서 군인과 경찰의 대립, 친일파 척결의 미흡 등이 여순반란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에 대해서

는 두 개의 인용문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1948년 10월 23일 서울 발 광주행 열차에서 국방부 인사국장 강영훈 중령이 합동통신 설국환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을 들어보자.

사회경제의 혼란에서 오는 일부 행정관리 내지는 경찰의 부패를 곁에 보면서 국군병사들은 완전히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군의 고민은 경찰 측에서 왕왕 말하듯 하는 국군의 불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의 부족을 비행으로써 보충하는 많은 경관은 다만 묵묵히 어느 날만을 기하고 있는 국군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군병사의 반경(反警)감정은 결코 상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모략으로 발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주상태만 하더라도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 때문입니다.

강영훈 중령의 발언에서, 당시 경찰이 부패와 비행을 저지르면서도 도리어 국군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군인들의 반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일보 70년사>에 기술된 여순사건 관련내용을 읽어보자.

1948년 9월 22일,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하여 악질적으로 민족배반행위를 하였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찰위원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충격적 사태가 터진다.<조선일보70년사> 2권, 113p)

이 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는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의 비협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여순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언론이 여순사건을 좀더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인용문이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1947년 말에 이르러서는 좌익계 신문들은 명맥만을 유지한 채 거의 사라졌지만,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에 단독으로 상정하여 점차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좌익계 신문은 물론 대부분의 중도계 신문들과 일부의 우익계 신문들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논조를 보임으로써, 점차 단독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신문·언론인들과 자주적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신문·언론인들간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문들 사이의 대립은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을 계기로, 이를 지지하는 신문·언론인과 이를 반대하는 신문·언론인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남북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고 남한만의 총선을 통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주적 통일국가를 염원하던 대부분의 신문들은 폐간되었고 일부 신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급격히 논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박용규, 「미군정기 중간파 언론: 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2>, 173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5년 해방 직후에만 하더라도 다수파를 형성하던 좌익계 신문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는 거의 소멸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 현상은 당시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미군정 공보부가 1946년 7월에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0%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상으로 '사회주의'(참고로 자본주의 13%, 공산주의 10%)를 꼽았으며 85%가 '대의기구를 통한 모든 인민의 지배'가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언론을 갖지 못한 민중은 계기만 주어 진다면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며, 또한 대다수 한국언론은 언제라도 민중을 배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3.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

여순사건이 터지자 한국언론은 이승만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철저히 이용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술한 오보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 주체세력 조작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화위복(?)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처음에는 1948년 10월 1일 발생한 '혁명의용군사건'과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최대의 정적이었던 김구를 견제하려 했으며, 나중에는 반란의 실질적 주체가 14연대 장병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이라고 몰아감으로써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대규모 반란 동참에 따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과 진압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1) 여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던 정부는 이틀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이범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범석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정객들과 결탁해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이 발표에 대한 두 신문의 보도이다.

이번 국군이 일으킨 반란의 주요 원인과 폭동 성질은 수식 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해서 반국가적 반란을 일으키자는 책동이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령으로 진급하여 여수 연대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방금 신문 중에 있는 오동기라는 자로 이자는 하사관 훈련의 기회를 포착해서 젊은 하사관의 단순한 심리를 선동하고 일방으로 극우진영의 국외 외국내의 실의 정객들과 간접 연락을 취하여 러시아 10월혁명과 비슷한 전국적인 반란을 기도했던 것이다.(서울신문 1948. 10. 22)

천인공노할 공산주의 도당의 패악은 물론 여기에 국가민족을 표방하는 극우파가 가담하여 최악적 행위를 조장시키고 사리를 위해 합한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인류의 자유평화를 파괴하고 폭동으로서 정치적 기도를 달성하려는 세력이 성공되는 법이 없다. 이 죄상이 앞으로 전부 폭로되는 날 대중은 더욱 분개할 것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죄상 폭동을 용인하지 않는다.(자유신문 1948. 10. 22)

이범석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0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제목의 포고문에 서도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서울신

문 1948. 10. 24)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태선 수도경찰청장도 '혁명의용군 사건' 수사발표를 통해 여론몰이를 거두고 나섰다. 한편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두 발표를 찬편일률적으로 대서특필했는데,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은 그 주모자 최능진, 오동기, 서세중, 김진섭 등이 남노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기들 몇 사람이 숭배하는 정객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했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여기서 잠깐 새롭게 혁명의용군사건의 주모자로 떠오른 최능진이란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최능진은 수사 당국에 의해 '유엔감시 하의 남한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남북협상이 실패한 후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려 한 인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는 남북협상에 나서려는 김구·김규식을 남한 우익진영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비난했음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남한 청년들은 다 썩었다고 분개한 민족주의자에 불과했다.(연합신문 1949. 2. 9) 결국 1948년 제헌의회선거 당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여 감히 '국부 이승만'과 겨루었던 최능진을 한번 손봐주려 했던 수사는 선거운동원으로 참가했던 군인을 신원보증했던 오동기로 이어졌고, 여순사건이 오동기가 군무했던 14연대에서 일어나게 되자 최능진에게 무력혁명의 죄까지 뒤집어씌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연막을 피우며 '극우의 정객' '국가민족을 표방하는 극우파' '음모정치가' '혁명의용군 주모자가 숭배하는 정객'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물론 그 인물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였다. 이승만 정부는 최능진이 주장했던 단독정부 수립반대, 남북협상 등의 정치적 입장이 김구와 한독당의 노선과 상당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용군사건'은 나중에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당장 재판과정에서 무력공산혁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63~164p), 국방부도 오동기가 '무고하게 역적의 죄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오동기가 생면부지인 최능진과 결탁하고 14연대의 김지희와 반란을 음모하기에는 14연대장 시절부터 한국전쟁 동안 일체 좌익에 협력하지 않는 등 행동거지가 너무나 명백했다고 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488p)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을 활용하여 우익 지배층 내부를 재편하고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광고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치세력을 재편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을 이용하여 정적을 압살하려던 이승만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김득중, 앞의 책, 165p)

이승만 정부가 '오동기 → 최능진 → 김구'라는 허구적 삼단논법을 통해 여순반란의 주체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다수 한국언론은 이승만 정부의 충직한 나팔수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과오는 여순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채 반복되었다.

(2) 이승만 정부는 '우익과 공산주의자 연합에 의한 반란'이라는 기존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 데다 여순사건이 장기화되자 반란의 주체세력을 이번에는 '민간인 공산주의자'로 몰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민간인 주동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형원 공보처차장이 총대를 댔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민중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남 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서울신문 1948. 10. 29) 다시 말해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들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공보처장의 발표는 정부 조직의 한 부분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이 발표는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를 사실상 수정하고 사건의 주체를 민간인 공산주의자로, 14연대 군인은 이에 종속되는 지위로 파악한 것이었다.(김득중, 앞의 책, 167p)



정부가 이 사건을 민간인 공산주의자 주동의 폭동으로 명백히 규정하면서 필연적으로 그 파장은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까지 번져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국방부는 여수와 순천에 대한 진압을 완료한 이후인 11월 3일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란 벽보를 전국에 살포했는데, 여기에는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대한민국 정부를 파괴",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행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평화일보 1948. 11) 이에 대한 김득중의 발언은 시사적이다.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실제 사실이 어떠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여유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뒤바뀜을 통해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내부갈등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김득중, 앞의 책, 169p)

여순사건의 주체세력을 '확인되지 않은 외부'로 설정할 경우, 더욱이 그것이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 상정될 경우, 현지 주민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정책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4일의 담화에서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른바 '민간인 주동설'과 '북한 사주설'은 여수와 순천에 대한 진압작전과 곧이어 벌어진 협력자 색출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에 대해 가해진 엄청난 희생을 정당화시켜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제시대의 만주토벌을 연상케 한 초토화작전과 협력자 색출은 14연대가 점령했을 때보다 더 큰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사실 진압이 시작되기 전 14연대 주력부대는 모두 여수와 순천을 빠져나갔으며 소수의 군인과 이 지역 좌익활동가들 그리고 분위기에 편승에 합류한 청년들만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진압군의 작전은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

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수없이 죽어갔음은 물론이다.(김득중,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304p)

(3)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는 1948년 순천 갑구 국회의원 황두연, 순천지청 검사 박찬길, 여수여중 교장 송옥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마저 반란의 '수괴'로 몰리어 총살당하거나 '빨갱이'로 몰렸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였던 박찬길 검사는 순천이 진압된 직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서 올곧은 판사로 이름이 나 있던 그의 죄목은 반란군에 협조하여 인민재판에서 재판장을 담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나중에 국회에서 근거 없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박찬길 검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까닭은 사실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현지 경찰 등이 올린 조작된 정보 때문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폭로하거나 막지 못했다. 도리어 언론은 국회의원까지 순식간에 '빨갱이'와 '반도'로 만들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당시 대표적인 극우언론 평화일보가 그 악역을 담당했다.

평화일보는 10월 30일 '순천반란지구 인민재판에 국회의원 황두연이 배석 판사로 활약'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에 판사로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런 기사와 소문은 전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조작된 기사였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김효석 내무부장관은 국회에서 황 의원이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점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이 오보로 황 의원은 진압 직후 다짜고짜 특별조사국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김득중은 당시의 국회속기록을 인용하여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황 의원이 인민재판에 참가했다는 평화일보 10월 30일자 기사는 이미 3일 전인 27일 순천에서 이지웅 기자가 보낸 것이었다. 양우정 사장은 "이런 악질행동을 한 자를 숙청하는 의미"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황 의원의 아들 황현수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부인했고, 국회 출입기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게재가 보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9일 중앙청 출입기자와 양우정 사장은 사실임이 틀림없다고 다시 주

장하였고 사장은 황 의원에 대한 기사를 실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신문계재 경위는 배후에 깔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였다. 더욱이 이 기사를 송고했던 이지웅 기자는 인민재판에서 석방된 어떤 시민한테서 황 의원 혐의사실을 들었을 뿐이고 다른 확인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었다.(김득중, 앞의 글, 318p)

참고로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평화일보 양우정 사장은 이승만과 가까운 인사였다. 놀라운 것은 황 의원의 누명이 벗겨진 후에도 평화일보가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수여중 송옥 교장은 사건 초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반란의 총지휘자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여학교 교장이 반란의 수괴라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도리어 이 점이 세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의 강경한 진압을 부추겼다. 송옥 교장이 여순사건의 민간인 수괴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일권 육군총참모부장의 10월 26일 발표를 통해서였다. 당시 국제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 동광신문 등 대다수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 사실은 지금도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에 '정사'로 기술돼 있다.

그러나 최근 그것은 잘못된 보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옥 교장은 좌익이 아니라 양심적 우익인사라는 것이다. 송 교장이 어떤 사람인가는 살벌한 계엄령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조를 받기 위해 군기대로 넘어갔을 때 여수의 각 학교와 학생단체에서 그의 석방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우익인사였던 송옥 교장이 반란군 수괴로 잘못 알려진 것은 봉기군이 그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강제로 인민대회 연사 명단에 이름을 집어넣은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1948년 11월 2일자 기사를 보더라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5명'의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보도하고도 정작 의장단 명단에는 송옥을 포함해 '6명'의 이름을 소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계엄 당국이 송옥 교장을 봉기군의 수괴로 만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사후에 추가한 뒤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보가 나왔을까. 반총남은 "신문 보도의 '수수께끼' 역시 서슬이 시퍼런 군 당국을 의식한 기자가 간접적으로 '송옥 교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반총남, 「여수 14연대 반란과 송옥 교장」, 월간 <말> 93년 6월호, 226~

227p)

한편 정부와 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보도 속출했다. 대표적인 오보는 10월 24일 여수를 완전 탈환했다는 보도(조선일보, 동아일보, 동광신문, 호남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14연대 반란군을 이끌었던 소대장 김지회를 전격 체포했다는 보도(동광신문)이다. 여수를 완전히 탈환한 것은 10월 27일이었다. 특히 군 당국이 한 지방지 기자에게 김지회를 체포했다고 제보함으로써 그 기사가 국내외에 전승됐다가 곧 바로 낭설이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4) 여기서 반드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봉기참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언론은 "홍안의 여학생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 혹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무려 남녀 학생의 80%가 반란군에 가담해 싸웠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정부보다 한술 더 떠 윤색과 작문까지 시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화의 창조(?)에는 특히 동아일보와 소설가 박종화의 역할이 컸는데, 박종화는 한 지방신문에 실린 기사를 윤색해 전혀 새로운 작품(?)을 창조했다. 그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원작'은 동광신문 1948년 11월 2일자에 실린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관군이 여수시가에 돌입하였을 때 조그마한 여학생 하나가 "아저씨!"하고 뛰어나와서 한 병사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병사는 인민군에 납치되어 있던 여학생인줄 알고 "걱정 마라! 적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하고 외치자마자 스카트 밑에 감추었던 권총을 쏘아서 그 병사를 죽인 예가 있다.

당시에 떠돌던 소문을 전한 이 짧은 기사를 박종화는 소설가 특유의 문체로 정리해 동아일보 1948년 11월 21일자에 실었다. 「박종화 남행록(완)」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보자.

작전참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지독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수 진주에서 생긴 일인데 여학생들이 카빈총을 치마 속에 감추어가지고 우리들 국군장교와 병

사들을 유도합니다. 오라버니! 하고 재생의 환희에서 부르짖는 듯 우리들을 환영합니다. 무심코 앞에 갔을 때는 벌써 치마 속에서 팽! 소리가 나며 군인들은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나이 겨우 열여덟, 열아홉 살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이러한 여중학생 몇 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느라고 너는 총살이다 위협했더니 처음엔 부인을 하며 엉엉 울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불려서 정말 총살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더니 ‘인민공화국 만세’를 높이 부릅니다.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평시에 학교 교육이 얼마나 민족적인 육성에 등한시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노릇이올시다. 학교에 다닐때 하고 공산주의의 이념만을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한 셈이올시다.

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는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좌익의 부정적 이미지로 일반 국민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압군과 정부, 그리고 언론과 지식인이 퍼뜨린 여학생 반란가담의 진상은 1949년 봄 여수군 장학사 오길언이 여수여중에서 열린 여수지역 교원세미나에서 발표한 ‘반란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해 당장 바로잡힌 바 있다. 오 장학사는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이 소문이 사실무근한 낭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교부의 지시를 받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해 보았는데, 조사한 결과 여학생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총을 들고 가담했다면 죽거나 군 당국에 처형당하거나 군법회의에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었다.(반총남, 앞의 글)

사실 병기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것도 여학생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정규군과 맞서 일사불란하게 싸웠다는 말 자체가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진압군은 이들의 저항을 ‘조직적이고 극렬한 저항’으로 묘사했지만 실상은 진압군의 공격을 죽창이나 총으로 방어하는 데 급급한 ‘비조직적이고 무모한 저항’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의 전말이다.(반총남, 「여순반란사건, 인민재판은 없었다」, 월간 <말> 1998년 11월호)

결국 진압군이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을 강조하게 된 것은 10월 23일과 24일에 있었던 정부 1차, 2차 진압작전의 무리한 전개와 그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민간인 주도설’ 발표와 함께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는 정부와 군의

‘토벌작전식 진압’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실제로 여수 진압시 국군은 육·해·공을 동원한 입체작전을 펼쳤다. 비행기가 정찰활동에 동원된 이후 바다에서는 해군의 사격이 있었으며 시내에서는 81밀리 박격포와 30밀리 중기관총을 사용하였다. 이때 일어난 화재는 전 시가를 검은 연기로 뒤덮었고, 여수는 죽음과 공포의 도시로 바뀌었다.

(5)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무리한 진압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냉전 논리로 잠재웠다.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11월 8일 북한의 최소한 8개 도시에서 공산지배에 반대하는 광범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원산에서만 6천명이 학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미군은 북한에서 소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의 조직된 저항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윤치영 장관의 ‘허황된 발표’는 남한의 여순사건이 가져올 신생 정부의 위약성과 정통성 부재를 외부의 북한정권에 대항한 더 큰 규모의 반란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173p)

그것은 ‘1948년판 북풍사건’이라 할만 했거니와,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사건을 일제히 1면 또는 사회면을 통해 대서특필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언론의 여순사건 왜곡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과장되거나 은폐되고 근거없이 확대되면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화가 되었다. 당시 신문은 기본적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득중,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362p)

## 4.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현재

2001년은 여순사건 발생 53주년이다. 그런데 여순사건 53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중이던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애기섬」의 제작이 한 언론사의 '색깔논쟁'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인류와 한민족이 냉전과 대립으로 얼룩진 20세기와 결별하고 화해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한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이 사태는 여순사건 왜곡보도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확연히 보여준 사례이다.

다큐영화 「애기섬」은 2000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2001년 9월까지 모든 제작을 마치고 10월 19일부터 여수와 순천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1시간 20분 길이로 제작 중이던 이 영화는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교수의 안내로 여순사건 당시 반대편에서 있던 관련자 등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논픽션과, 한 평범한 가족의 비극을 재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모색하는 픽션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15개 보수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군의 향토사단 역시 제작과정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영화제작이 중단될 정도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한 언론사가 이 영화에 대해 '사상검증'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공든 탑'은 와장창 무너졌다.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는 영화 「애기섬」을 “여순 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키고,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양민 1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라고 규정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는 그 근거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사>에 적혀 있는 여순사건 관련 기록을 제시하는 한편 몇몇의 취재원과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월간조선>의 이러한 단순명쾌한(?) 결론은 '도그마적 역사인식'과 '부실한 확인취재'에 바탕한 함량미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단순하고 고정적인 역사인식에 바탕해서 사고와 판단을 전개하면 총체적이고 탄력적인 상황인식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예컨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미궁에 빠져 있던 김구 암살 사건의 경우 최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그 진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기자는 역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종창 기자의 기사를 정독해 보니,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1) <월간조선>은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양민 1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이 영화에서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고증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일부 등장한다. 이는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역사의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군이 여수시에 함포사격을 했다는 장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우종창 기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한 여수지역 6·25참전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한국전쟁사>에 실린 관련 기록 확인, 종군기자단의 기록 확인 등 4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해군 함정이 출동하였으나 포격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 한 여수지역 6·25 참전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함포사격은 처음 듣는 얘기이다.”
- <한국전쟁사>에 실린 관련 기록 확인: “함정에서 박격포를 쏘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함포사격은 아니다.”
- 종군기자단의 기록 확인: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함포사격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취재의 수준과 범위가 너무나 부실하고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기록만을 취하거나 그런 취재원만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압작전시 함포사격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월간조선> 기자는 국방부 관계자나 여수지역 6·25 참전자회 관계자만 만나기 전에 이 지역 향토사학자 김계유 씨의 증언부터 점검해야 했다. 김씨

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여수를 삼면에서 포위한 뒤 반군도 없는 거리에, 6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 거리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장갑차를 앞세워 전 시민을 포로로 삼은' 진압작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육지에서는 사방에서 콩 볶는 것 같은 총 소리! 따아 따아 따아 하고 쉴 새 없이 뿜어대는 기관총 소리! 쿠웅 쿠웅 쿠웅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박격포 소리! 바다에서는 아무데나 용서 없이 쏘대는 함포사격 소리! 하늘에서는 귀를 찢는 비행기의 굉음! 좌우간 이 순간의 여수는 마치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김계유, 「내가 겪은 여순사건」, <여수문화> 제5집)

한편 <월간조선>이 1993년 발간한 <한국현대사 119대 사건>에 여순사건 관련 원고를 게재했던 주인공이자 종군기자단의 일원이었던 이경모 씨(당시 호남신문 사진부장)는 자신의 회고문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여수탈환은 10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송호성 장군이 진두지휘를 하며 공격하였으나 워낙 반군의 반격이 심하여 첫 번째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26일 밤에 새로 투입된 장갑차를 앞세우고 재공격을 시작하여 곧바로 여수시 외곽에 진입한 국군은 27일 새벽녘에 함포사격을 시작하면서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키게 되었다... 함포사격이 끝난 뒤의 여수 시가지는 계속 불타고 있었으며 27일 밤의 여수 시가지 야경은 대낮의 살기던 상황이 언제였냐는 듯 아름답기만 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1948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함포사격'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26일 대한민국 육군총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여수에 대하여 2면 공격으로 남방으로부터는 여수항에 머물러 있는 해군 함정에서 발사하는 37밀리 함포의 탄막 엄호하에 수륙양면작전을 써서 여수상륙에 성공하였다 한다.

따라서 <월간조선>은 영화 「애기섬」을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고증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묘사한 영화'라고 단정짓기 이전에, “함포사격이 있었다”는 다양한 증언과 기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객관적 검토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2) <월간조선>은 영화 「애기섬」의 제목으로 따온 '애기섬'이 보도연맹 학살 장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제시됐는데,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한 여수지역 6·25참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그런 역사적 기록이 없다.”
- 한 여수지역 6·25 참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여순사건 무렵 애기섬에서 희생자가 있었다는 증언은 있지만 보도연맹 학살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논거의 질은 너무나 부실하다.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바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불확실한 증언(달리 표현하면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만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기자로서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월간조선>은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친 현장발굴과 증언청취를 끝낸 뒤 정리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이 종료되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좌익 성향자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이들을 관리하였는데 여수지방의 보도연맹원들은 거의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다. 사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지자, 정부는 전국에 걸쳐 이들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시키고 이들을 처형하였다. 울촌, 소라, 삼일, 쌍봉과 여수의 내륙지방은 여수경찰서 무덕관에 집결시킨 후에 경남 남해도 남단에 있는 애기섬으로 끌고 간 후 총살하고 수장하였는데 당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약 120명 이내로 추정된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자료집2>, 16p)